

고대 중국어 내포문 구성에 대한 논의

박 향 란*

<目次>

I. 들어가는 말	2. 관형절
II. 고대 중국어 내포절의 유형 분류	3. 부사절
1. 명사절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문장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단순문과 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복합문이 있다. 복합문은 인류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으로 그 구성 방식에 따라 다시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뉜다.¹⁾ 접속문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독립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내포문은 문장이 다른 문장 안의 한 성분으로 포섭되는 것이다.²⁾ 이 글은 고대 중국어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 1) 중국어학계에서 복합문 즉 복문은 흔히 접속문을 가리키며 다시 병렬문(並列句)와 종속문(主從句)로 나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내포문은 중국어 문법에서의 주로 從屬句를 불렀는데 만약 중국어학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접속문의 한 형태인 종속문(즉 중국어학계의 主從句)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절이 문장 성분의 하나로 포섭된다는 측면에서 내포라는 의미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국어학계에서 쓰는 내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접속문은 대등 혹은 병렬문(coordination, 並列句)과 종속문(subordination, 主從句)으로 나뉘는데 대등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문장이 이어진 것이고 종속은 좀 더 상호 의존적이다. 대등은 순접, 역접, 대칭 등을 포함하며 선행절과 후

의 내포문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기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찍이 呂叔湘(1978/2004:200-207)은 중국어는 小句와 小句가 물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는 流水句가 많아 단순문(단문)과 복합문(복문)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연구하여 유한한 형식이 어떻게 결합되어 무한하게 발전되는지 그 규율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문법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았다.³⁾ 따라서 중국어의 이런 특성에 부합하는 복문 즉 복합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합문의 연구는 접속문이 복합문 연구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⁴⁾ 내포문은 복합문의 체계 아래에 있다기보다는 각기 다른 문법 범주 예컨대 명사화, 복합동사 술어 등과 연계되어 개별적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즉 접속과 내포가 복합문의 두 구성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내포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중국어 복합문 연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합문 체계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여 통일적인 분석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劉丹青(2005:193)은 현대 중국어에 언어 유형론을 소개하면서 내포문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어 문법 연구가 언어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방언 조사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의 연구 성과를 세계 언어학계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국내에서 통용되는 내포문과 국외에서 통용되는 개념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행절로 구성되고 종속은 시간, 이유, 목적, 가정, 조건 등의 의미 관계가 주절과 종속절로 서로 연결된다.

- 3) 朱德熙(1985/1997:457~460)는 小句를 分句라고 불렀는데 分句는 문장이 아니지만 詞組(구)라고 볼 수도 없는 詞組보다는 상위 단계의 형식으로 하나의 독립된 문장에서 그 앞뒤의 휴지와 문장상의 억양을 제거하고 남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복문은 이런 여러 分句로 구성되며 分句 사이의 휴지는 쉼표로 나타내고, 전체 복문 앞뒤에 있는 휴지는 마침표가 나타낸다. 分句는 連詞나 代詞가 연결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 4) 대표적으로 邢福義(2002)의 ‘漢語復句研究’를 들 수 있다.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후속 연구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고 중국어사 분야에서도 주로 접속 구성에 사용되는 허사인 접속사의 분류 및 그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 梁銀峰(2016)이 중국어사에 출현하는 내포문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전히 개별적인 몇몇 구문에 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고대 중국어의 내포문 구조를 파악하여 유형 분류를 진행하고 언어 유형론과 문법화 이론 등 기존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고대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와 비교해볼 때 다소 복잡한 내포문 구성 방식을 갖고 있으며 중고시기를 거치면서 간략화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언어는 공시적·통시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연구의 전면성, 연계성의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어 내포문 구성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먼저 劉丹青(2005)이 Comrie & Smith(1977)가 제시한 내포문 개념을 현대 중국어에 적용한 논문에 근거하여 한 문장 안에서 안긴 다른 문장 즉 내포절을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 내포절이 출현하는 문맥적 환경과 관련 문법 표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때 한국어,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의 내포문과 비교 분석하면 고대 중국어 내포문의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左傳》과 《孟子》의 용례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고대 중국어 내포문의 유형 분류

1. 명사절(Nominal Clause, 名詞從句)

명사절은 보문절의 일종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 절의 형식을 갖는 것이다.⁵⁾ 명사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에 나타나

는데 이 자리에 절이 출현할 수 있다.⁶⁾ 그리고 많은 언어에서 보문소 (complementizer)를 사용하여 이들이 절임을 나타낸다. 영어의 경우 ‘that’을 이용하거나 동사 앞뒤에 ‘-ing’ 혹은 ‘to’를 붙이고 교착어인 한국어는 ‘-음’, ‘-기’를 사용하여 동사의 어미를 바꿔준다.

현대 중국어는 ‘我知道這本書有意思’와 같이 명사 기능을 하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도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문소가 출현하지 않는다. 이와 반해 고대 중국어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보문소 ‘之’를 삽입하여 절을 명사적으로 만들어준다.⁷⁾ 때문에 고대 중국어 어법학계에서는 이를 명사화 표지 혹은 조사라고 불렀다. 고대 중국어의 명사절은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주어(Subject Clause, 主語從句)

고대 중국어는 주어 혹은 화제의 위치에 절 명제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절은 그 사이에 이른바 보문소의 일종인 명사화 조사 ‘之’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장은 대개 판단문의 성격을 띠며 이로 인해 서술어 부분에 ‘也’를 자주 동반한다.

5) 보문절(complemental clause)은 보충하는 절이란 의미로 劉丹青(2005:193-212)은 이를 補足語從句라고 명명하였다. 현대 언어학에서 보문절이 가리키는 범위는 다소 상이한데 주로 문장 중의 명사구 및 동사구의 내부에 내장된 문장 중에서 관계절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영어 ‘I think (that) it will rain.’에서 ‘(that) it will rain’이나 ‘the fact that he was there’에서 ‘that he was there’, 그리고 ‘John persuaded Mary to go.’에서 ‘to go’와 같은 부정사구, 동명사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관계절 이외에 명사를 수식하는 절인 ‘the fact that he was there’과 같은 경우는 보문절로 보지 않고 동격 관형절로 분류하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도 이런 경우는 동격 관형절로 분류하였다.

6) 전통어법에서는 이를 主謂短語, 動賓短語로 불렀다.

7) 보문소의 위치는 VO언어는 대부분 보문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나타나고, OV언어는 보문절 앞과 뒤 모두 올 수 있으며 드물게 보문절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Whaley, 1997/2008:339). VO언어인 영어의 ‘that’은 보문절 앞에 나타나고 OV언어인 한국어는 동사의 어미가 변화된다. 고대 중국어의 ‘之’, ‘所’는 주어와 서술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 (1) 仕如此其急也, 君子之難仕, 何也? (孟子·滕文公下)
 벼슬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다급한데 군자가 벼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故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孟子·梁惠王上)
 고로 왕께서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其尊德樂道, 不如是, 不足與有爲也。(孟子·公孫丑下)
 그가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거워함이 이와 같지 않다면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 부족합니다.

(1~2)는 주어 자리에 절이 출현하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之’가 나타난다. (3)의 ‘其’는 사실상 ‘N+之’의 축약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소유격 주어로 명사절을 이끈다. 위의 예문들은 주어절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낸다. 예컨대 군자가 벼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묻거나, 왕이 왕 노릇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절 주어를 가진 한국어와 영어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판단의 의미를 갖는다.

- (4) a. That he did it is true.
 b. That she flunked the exam is terrible.
 c. To do this is difficult.⁸⁾
- (5) a. 그가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b. 그가 고향에 돌아간 것이 확실하다.
 c. 그가 반역행위를 했던 것이 사실인가?⁹⁾

T. Givon(1993/2002:201)은 영어에서 형용사가 절 주어를 가질 경우는

8) T. Givon(1993/2002:201)에서 인용.

9) 남기십·고영근(1985:376)에서 인용.

주어 자리에 출현한 명제에 대해 진실성(truth)이나 확실성(certainty), 어려움(difficulty)과 같은 어떤 평가(evaluative)를 내린다고 보았다. 한국어 예문 역시 ‘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이다’와 같은 형용사가 주어절 뒤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고대 중국어의 예문이다.

(6)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孟子·梁惠王上)

풍년에도 계속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 선으로 몰고 가니, 이로 인해 백성이 그를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7) 王之好樂甚, 則齊國其庶幾乎?(孟子·梁惠王下)

왕께서 음악을 좋아함이 심하면齊나라는 기대할 만 합니다.

(8) 前日之不受是, 則今日之受非也(孟子·公孫丑下)

예전에 받지 않는 것이 옳다면 지금 받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 예문에서 ‘쉽다’, ‘심하다’, ‘옳다’와 같은 형용사 술어 역시 앞의 주어절이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를 내린다.

고대 중국어는 문장 앞 주제어 위치에 시간, 처소, 범위와 같은 진술의 대상이 주술 구조의 형식으로 출현할 때도 역시 주어와 술어사이에는 ‘之’가 나타나며 판단 어기사 ‘也’와 자주 함께 쓰인다.

(9)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孟子·梁惠王上)

과인은 나라에 대해 진심일 뿐이다.

(10)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孟子·盡心上)

군자는 사물에 있어 아끼지만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대함에 사랑하지만 친하지는 않다.

(11) 楚子之在蔡也, 鄭陽封人之女奔之, 生太子建。(左傳·昭公十九年)

楚나라 임금이蔡나라에 있을 때 鄭陽을 지키는 국경 관리인의 딸을 데려다 태자 建을 낳았다.

찰스 N 리 & 샌드라 A. 톰슨(1989:108-125)은 중국어 문장 앞에 나오는 다양한 성분을 일률적으로 전부 화제(topic) 혹은 주제로 보았는데 이는 문법 분석에 통일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포문 구조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주제어 성분은 뒤에 나오는 사건 혹은 상황 발생의 전제나 배경이 되고 서술어는 앞에 출현한 주제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을 드러낸다. (11)의 경우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처럼 보이는데 서술어 부분에 행위동사가 나타나 앞의 예문들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이때는 사건 발생의 배경이나 전제를 강조한다고 생각된다.

2) 목적어(Object Clause, 賓語從句)

고대 중국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 그 서술어로 ‘알다’, ‘보다’, ‘듣다’와 같은 지각 혹은 인지 동사가 자주 출현한다. 이때도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之’가 함께 사용된다.

- (12) 鄭良佐如陳蒞盟，辛巳，及陳侯盟，亦知陳之將亂也。(左傳·隱公七年)
 鄭良佐가 陳나라에 가서 회맹하고 辛巳년에 陳侯와 회맹하면서 陳에 곧 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 (13) 臣聞小之能敵大也，小道大淫。(左傳·桓公六年)
 소인이 듣기로 작은 것이 큰 것을 대적할 때는 작은 것이 도가 있고 큰 것은 어지럽다고 하였습니다.
- (14) “吾見師之出而不見其入也!”(左傳·僖公三十二年)
 나는 스승이 나오는 것은 보았으나 그가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위 예문에서 목적어 절 앞에 ‘知’, ‘聞’, ‘見’과 같은 지각 및 인지 동사가 쓰였다. 이때도 판단을 나타내는 조사 ‘也’가 자주 함께 사용된다.

영어 역시 ‘see, know, say’와 같은 지각(perceive)-인지(cognize)-발화(utter)동사가 절 앞에 출현하는 경향성을 가진다.¹⁰⁾

10) T. Givon(1993/2002:202) 참조.

- (15) a. she **saw** that he was leaving
- b. he **knew** that Marge had left town
- c. they **say** she's going to recover

고대 중국어 목적어절 앞에는 욕구나 감정을 나타내는 서술어도 자주 등장한다.

- (16)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孟子·梁惠王上)
왕이 만약 이를 알았다면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은 것을 바라지 마 십 시오.
- (17) 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民惟**恐**王之不好勇也。(孟子·梁惠王下)
지금 왕께서는 한번 노해서 천하의 백성을 편안케 하면 백성은 왕이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음을 걱정합니다.
- (18) 晉人**患**秦之用土會也，夏，六卿相見於諸浮。(左傳·文公十三年)
晉나라 사람이 秦나라가 土會를 등용할까 걱정하여 여름에 여섯 관리 들과 諸浮에서 모였다.

(16~18)을 보면 ‘바라다’, ‘두려워하다’, ‘걱정하다’와 같은 심리 감정 동사가 목적어절 앞에 나타난다.

한국어에서도 지각 혹은 감정동사가 목적어 절을 갖는 예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19) a.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 b. 나는 그가 완쾌했음이 **기뻐다**.
- c. 내가 집에 일찍 돌아왔기가 **다행이다**.¹¹⁾

또 고대 중국어에는 ‘爲’와 ‘非’와 같이 계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불완전 자동사나 ‘猶’, ‘如’같은 비유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 뒤에 목적어로 절 성분이 자주 출현한다.

11) 남기삼·고영근(1985:376)에서 인용.

- (20) 士之尊賢者也, 非王公之尊賢也。(孟子·萬章下)
 선비가 현자를 섬기는 것이지 제왕이 현자를 존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21)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孟子·告子上)
 부유할 때는 자제들이 게으르고 가난할 때는 자제들이 포악하다. 하늘이 이 재주를 내려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빠진 바가 그러한 것이다.
- (22) 夫子之在此也, 猶燕之巢於幕上。(左傳·襄公二十九年)
 부자께서 여기에 계신 것은 마치 제비가 천막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20~21)은 ‘非’뒤에 주술구조가 출현하며 여전히 ‘之’가 사용된다. (22)는 ‘猶’뒤에 절 목적어가 나오며 비유나 유추를 나타낸다.

이밖에도 사역동사나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성 성분 역시 목적어 절로 볼 수 있다. 영어에서 양상동사와 사역(조종)동사, 정보동사 등도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오며 이때 목적어절의 주어는 앞에 출현하는 주어와 동일 지시되어 생략된다고 보았다.¹²⁾ 하지만 양상동사와 조종동사 즉 조동사와 사역동사 뒤에 출현하는 성분을 동사로 볼 것인지 혹은 명사 내포절로 볼 것인지는 여러 언어에서 아직 논쟁 중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여러 언어에서 서술어의 특징에 따라 뒤에 절 성분에 출현하는 보문소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는 to-부정사 절과 원형 부정사 절의 선택이 주절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조동사나 지각 혹은 사역 동사 일 경우 원형 부정사 절이 오고 이외의 동사는 to-부정사를 취한다. 한국어 역시 상위문의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명사절을 이끄는 어미인 ‘-음’ 혹은 ‘-기’의 선택이 달라진다.¹³⁾ 초보적 관찰에 따르면

12) T. Givon(1993/2002) 참조.

13) 이익섭·채완(1999:390-391)에 따르면 ‘-음’은 화자의 인식양상에서 [+결정성,

고대 중국어의 목적어 절에서 ‘之’의 사용 유무가 서술어의 특징에 따라 문법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직간접 인용동사와 사역동사와 같은 서술어들이 목적어 절 앞에 출현할 경우 지각이나 감정동사와는 달리 ‘之’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孟子·梁惠王上)

이것은 백성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다.

(24) 以是觀之, 人謂子產不仁, 吾不信也。(左傳·襄公三十一年)

이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자산이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

(25) 外人皆稱夫子好辯, 敢問何也?(孟子·滕文公下)

외지인들이 모두 부자께서 변론을 좋아한다 하니 왜 그렇습니까?

(23)은 ‘使’를 사용하는 사역문이고, (24~25)의 ‘稱’, ‘曰’, ‘謂’와 같은 직간접 인용문이다. 이런 서술어 뒤의 목적어 절에는 ‘之’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지각, 인지, 감정, 비유동사보다는 행위성이 강하여 서술어와 목적어의 전형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之’라는 보문소 즉 명사화 표지가 따로 필요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합하자면 고대 중국어는 앞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특징 즉 지각, 인지, 감정, 비유동사일 경우 목적어 절에 보문소 ‘之’가 삽입되고 행위성이 좀 더 강한 사역, 인용, 양상과 같은 동사의 경우는 ‘之’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¹⁴⁾ 앞서 영어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언어에 따라 구분하는 문법 형태

+실체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기’는 [-결정성, -실체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때문에 ‘-음’은 대체로 상위문의 서술어가 ‘보다’, ‘듣다’와 같은 지각동사나 ‘알다’, ‘깨닫다’와 같은 인식 동사, ‘평가하다’, ‘확실하다’와 같은 평가동사일 때 선택되고, ‘적합하다’, ‘좋다’, ‘싫다’, ‘쉽다’와 같은 동사가 쓰일 때는 ‘-기’가 선택된다. 예컨대 ‘나는 피로로 온 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의식했다]’, ‘외국어는 배우기가 [쉽다, 어렵다]’와 같이 쓰인다.

14) 본 견해는 본고의 초보적인 조사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후일을 기약한다.

는 차이가 있다. 목적어 절이 서술어와의 결합하는 방식은 언어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서술어(Predicative Clause, 表語從句)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서술어 부분에 명사절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我的愛好是看電影’ 같이 ‘是’와 같은 계사 혹은 일부 불완전 자동사는 절을 주어의 보충어로 취할 수 있다. 마치 영어 be동사 뒤에 to부정사의 형식이 출현하거나 한국어 주격 보어자리에 절이 오는 것과 같다.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이들을 보어절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어는 품사적으로 계사를 동사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을 목적어절로 보며 보어절로 부르기 어렵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에는 ‘是’와 같은 계사 없이도 판단문의 서술어 자리에 명사절이 바로 서술어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26)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孟子·梁惠王上)

살아있는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27) 梁惠王曰 晉國天下莫強焉, 叟之所知也。(孟子·梁惠王上)

梁惠王이 말할길 췌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막강한 것은 당신도 아는 바입니다.

(28) 如琴張, 曾皙, 牧皮者, 孔子之所謂狂矣。(孟子·盡心下)

琴張, 曾皙, 牧皮와 같은 자는 공자가 말한 바 狂이라는 것이다.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독립절로서 서술어로 충당되었다. 이들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앞의 구나 절과 함께 라야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단독절(小句, 分句)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술어에 출현하는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¹⁵⁾ 다시 아래의 예문

15) 이 부분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몇몇 예문은 익명의 심사자께서 제공해주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다.

을 보자.

- (29) 夫魯, 齊, 晉之唇. 唇亡齒寒, 君所知也, 不救何爲? (左傳·哀公八年)
 무릇 魯나라는 齊와 晉나라의 입술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
 다는 것은 임금께서도 아는 바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
 니까?
- (30) 魚, 我所愛也, 熊掌, 亦我所欲也. (孟子·告子上)
 물고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다.
- (31) 在彼者, 皆我不爲也; 在我者, 皆古之制也. (孟子·盡心下)
 그에게 있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요, 내게 있는 것은 옛 제도이다.

위 예문은 관계절 표지를 이용해 먼저 절을 명사성 성분으로 만든 다음 서술어로 사용한 것이다. 문장 끝에는 주로 판단을 나타내는 어기사 ‘也’와 함께 출현하다. ‘之’ 대신 주어와 서술어 자리에 관계절 표지 ‘所’를 이용해 명사절로 만들었다. ‘所’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사와 관련된 목적어 성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관형절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관형절(Attributive Clause, 定語從句)

언어 유형론에서 관형절은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와 같은 관계절(relative clause) 즉 관계 관형절과 ‘the fact that I met a girl yesterday’와 같은 동격 관형절로 나눈다. 이 둘은 모두 명사를 수식하는 주술구조임에는 틀림없으나 관계절은 논항이 들어갈 빈자리 예컨대 주어나 목적어 자리로 중심명사(head noun)로 환원될 수 있고, 동격 관형절은 모든 논항이 갖추어져 환원될 수 없다.¹⁶⁾ 위에 ‘the girl’은 관계절 안에 목적어 성분으로 환원되지만 ‘the fact’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환원될 수 없다. 관형

16) 관계절에서 생략된 논항의 원래 자리는 비워있을 수도 있고 대명사 등으로 재지시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는 간접 목적어를 제외하고 ‘[ti]開車的人’과 같이 생략된 논항이 비워져있는 경우이다.

절은 중심명사와 함께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혹은 서술어 자리에 출현한다.

1) 관계절(Relative Clause, 關係從句)

현대 중국어 보통화는 ‘的’로 관계절 표지가 통일되었지만 고대 중국어에는 ‘所’, ‘者’, ‘之’와 같은 여러 관계절 표지가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다른 문장 성분 즉 목적어와 주어 성분을 재취(提取)하는 데 쓰인다. 이는 마치 영어가 주격과 소유격, 목적격 등에 따라 관계사가 구분되는 것과 같다.

먼저 관계절에 쓰이는 ‘者’의 용례이다.

(32) 亡鄧國者, 必此人也. 若不早圖, 後君噬齊. (左傳·莊公六年)

鄧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33) 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孟子·梁惠王上)

공자가 ‘처음 토용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34)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孟子·滕文公上)

사람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그를 먹여 살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대접받는 것이 천하의 도리다.

‘者’는 문장에서 주어성분을 재취하는데 ‘등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 ‘처음 토용을 만든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같이 행위자를 나타낸다. 다음은 ‘所’가 관계절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35) 為不順於父母, 如窮人無所歸. (孟子·萬章上)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궁벽한 자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다.

(36) 衣食所安, 不敢專也, 必以分人. (左傳·莊公十年)

옷과 음식에서 편한 바를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37) 其妻問所與飲食者, 則盡富貴也. (孟子·離婁下)

그의 아내가 함께 밥을 먹은 자를 물으니 전부 부귀한 사람이었다.

위 예문의 ‘所’는 (35)는 장소, (36)은 동작의 대상, (37)은 동작의 참여자 등 주로 동사와 관련된 대상 즉 목적어에 해당되는 논항을 관계화 시킨다. (35)를 통해 ‘所’는 원래 의미인 ‘장소’에서 문법화 되어 관계절 표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者’가 ‘사람’에서 문법화 되어 주어 역할을 채워하는 관계절 표지가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대 중국어에서 이들 관계절 표지는 중심명사와 융합되어 있다. 영어가 이와 비슷한 유형인데 劉丹青(2005:197)은 고대 중국어의 ‘所’는 영어의 I know where he came from(其所由來)와 follow what I like(從吾所好)과 비슷하나 다만 출현 위치에 있어 ‘所’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나타나며 영어 ‘where’과 ‘what’은 절 앞에 위치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다음은 ‘之’가 관계절에 쓰인 경우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之’는 앞서 명사절의 주술구조에 출현하는 보문소 이외에 관형어 표지로도 사용되며 관계절 표지로도 쓰인다. 관계절에 쓰이는 ‘之’는 관형어 표지에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형절 안에 관계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38) 且是人也，居喪而不哀，在戚而有嘉容，是謂不度。不度之人，鮮不爲患。(左傳·襄公三十一年)

게다가 이 사람은 상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슬픈데도 기쁜 낯빛이니 이는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의가 없는 자는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39) 子之持戟之士，一日而三失伍，則去之否乎？(孟子·公孫丑下)

그대의 창을 잡은 군사가 하루에 세 번 대오를 이탈하면 버리겠습니까?

(40) 先王有不忍人之心，斯有不忍人之政矣。(孟子·公孫丑下)

선왕은 사람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차마 어찌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之’가 관계절에 쓰이는 경우는 ‘者’와 마찬가지로 주로 행위자인 주어 역할을 채워하는 기능을 한다. ‘者’와 구분되는 것은 ‘者’가 중심명사와 관계절 표

지와 융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之’는 처음부터 관계절 뒤에서 중심명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所’, ‘者’, ‘之’를 사용하는 관계절은 각기 다른 명사성 성분을 관계화 시키며 다양한 어순을 갖는다. 이런 어순과 기능의 차이는 이들이 전혀 다른 문법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¹⁷⁾ 이들 관계사가 출현하는 위치와 채워하는 문장 성분의 차이는 이들 관계사들의 연원과 관련이 있다. ‘所’와 ‘者’는 각각 ‘장소’, ‘사람’이라는 명사에서 문법화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所’, ‘者’가 중심명사와 관계사 기능을 융합 공유한다. 반면 ‘之’는 관형절 표지에서 관계절 표지로 변하였기 때문에 항상 관계절과 중심명사 사이에 나타난다.

고대 중국어의 관계절은 후대로 올수록 더욱 간략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관계사 ‘所’, ‘者’, ‘之’는 중고 중국어시기를 거치면서 ‘底(的)’로 통합되었다. 그 위치에 있어서도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 혹은 뒤에 출현하는 대신 관계절과 명사 사이에 관계사가 존재한다. 이런 변화는 수식어+피수식어로 중국어 명사구 어순이 통일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그런데 언어 유형론에서는 VO/OV유형과 중심명사와 관계절의 상대적 위치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VO유형은 영어에서 보듯 관계절이 주로 명사 뒤에 출현하고 OV어순은 관계절이 명사 앞에 출현한다. 그런데 현대 중국어는 VO어순이면서 관계절이 중심명사 앞에 출현하는 유일한 언어로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변천이 중국어가 고대에서 중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형 변화를 겪었다는 주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¹⁸⁾

17) 백은희(2017), 박향란(2017) 참조.

18) 何元建(2017)에 따르면 黃正德, 馮勝利 등은 중국어가 合成性의 특성이 강한 언어에서 分析性이 강한 언어로 점진적인 유형학적 변화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외에도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2) 동격 관형절(Appositive Relative Clause, 同一性定語從句)

현대 중국어에는 ‘去旅游的计划’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동격 관형절이 존재한다. 동격 관형절은 빠진 논항이 존재하는 관계절과 달리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을 떼어 놓더라도 그대로 독립된 문장이 된다. 한국어에서는 주로 ‘소문’, ‘낭설’, ‘소식’, ‘연락’, ‘보도’, ‘정보’, ‘사실’, ‘기억’ 등의 명사 앞에 동격 관형절이 나타난다.¹⁹⁾ 영어도 비슷한데 ‘fact, truth, news, rumor, idea, advice, evidence’과 같은 명사와 동격 관계절이 자주 함께 쓰인다.

(41) 你有去日本的计划吗?

(42) 우리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43) W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smoking is a danger to our health.

그런데 동격 관형절은 《孟子》나 《左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를 긴 수식어가 명사구 앞에 출현하는 경향을 꺼리는 인지 기능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병규(2012)는 유형학적 어순 배열의 원칙인 복잡성 증가의 원칙, 조기 직접 성분 원리, 중심어 근접성 원리를 현대 중국어 명사구 어순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언어는 대개 짧고 간단한 성분 즉 접어나, 대명사, 명사 등이 선행하고 전치사구나 관계절과 같은 복잡한 성분은 나중에 오는 복잡성 증가의 원칙을 따른다. 또 문장의 직접 성분의 파악이 쉽도록 하고 동사와 중심명사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VO/OV유형의 대표적인 언어로 앞의 예문처럼 대부분 위의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나 중국어 예문(34)를 보면 명사 앞에 복잡한 관계절이 와서 복잡성 증가의 원칙을 위배하고 또 동사와 중심명사 사이에 관계절이 오면서 조기 직접 성분 원리 및 중심어 근접성 원리를 모두 위배한다. 때문에 위의 동격 관계절은 ‘你有计划去日本吗?’와

19) 남기삼·고영근(1985:380) 참조.

같이 연동구문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다. 즉 동사와 목적어 사이가 길어짐에 따른 인지적 부담이 줄이기 위해 동격 관형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3. 부사절(Adverbial Clause, 狀語從句)

1) 종속절과 부사절의 구분 기준

접속문을 구성하는 종속절과 내포문을 구성하는 부사절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if, since, although, so that’와 같은 경우 그 위치에 상관없이 부사절 표지로 본다. 반면 현대 중국어는 ‘因爲...所以’, ‘雖然...但是’ 등을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는 종속문인 접속문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원인, 가정, 양보, 조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았다.²⁰⁾ 한국어도 문장에서 동사 활용어미 ‘-듯이’, ‘-게’, ‘-도록’ 등이 오면 부사절로 보아야 할지 연결어미에 의해 종속절로 보아야 할지 여전히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²¹⁾ 혹자는 부사는 문장의 주요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부가어로 처음부터 내포 구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절과 문장과의 결합도 혹은 문법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Hopper & Traugott(1993/1999:177~178)은 복합문의 세 종류인 대등문, 종속문, 내포문은 문법화 정도에 차이가 나며 대등문의 문법화 정도가 가장 낮고, 내포문이 문법화 정도가 가장 크며 종속문은 그 사이에 위치하며 복합문을 구성하는 절은 서로 독립적인 대등절에서 상호 의존적인 종속절, 다시 완전히 융합되는 내포절로 변하는 추세를 겪는다고 보았다.²²⁾ 즉 문장 안에 절의 융합 정도에 따라 두 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종속적으로 의존하는 지 구분한다.

20) 劉丹青(2005:16) 참조.

21) 이익섭·채완(1999:380-383) 참조.

22) 高曾霞(2005) 역시 중국어의 절 결합이 複合句 > 複雜謂語句 > 簡單句로 연속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劉丹青(2017:16~17)도 현대 중국어에서 광의의 부사절과 협의의 부사절로 나누었는데 후자로 절 뒤에 ‘地’, ‘似的’의 표지를 사용하거나 동사 뒤에 ‘得’를 써서 주술 구조를 이어주는 경우를 들었다.²³⁾ 이는 문장 성분 안의 융합 정도가 높은 지가 판단 기준으로 부사절을 하나의 주어를 공유하면서 단문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로 정한 것이다. 본고 역시 고대 중국어에서 하나의 주어를 사용하고 단문 안에 포섭되는 경우를 좁은 의미의 부사절로 본다.

2) 고대 중국어 부사절 표지 ‘而’, ‘以’

현대 중국어의 ‘이유’, ‘양보’, ‘조건’, ‘목적’ 등 다양한 의미관계를 고대 중국어에서는 ‘而’가 수행한다. 지금까지 ‘而’를 부사절 표지로 볼 것인지 종속절 표지인 접속사로 볼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종속절과 내포문의 부사절간의 모호함은 결국 문법화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런 견해는 그동안 이견이 많았던 ‘而’의 성격을 규명해줄 수 있는데 대등 혹은 종속문에서 발전되어 점차 내포문의 부사절에도 쓰이게 되었다.

‘而’는 두 절을 이어주는 연동 구문 혹은 종속구문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다.

(44) 孟子登高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孟子·盡心上)

孟子는 높은 산에 올라서魯나라를 작다고 여겼고, 泰山에 올라서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

(45) 虞不用百裏奚而亡, 秦穆公用之而霸。(孟子·告子上)

虞나라는 百裏奚를 쓰지 못해 망했고 秦나라 穆公은 그를 등용하여 패자가 되었다.

(46) 仲子生而有文在其手。(左傳·隱公元年)

仲子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무늬가 있었다.

23) ‘他脸色铁青地对我说’, ‘他累得饭也不想吃了.’와 같은 예문을 들었다.

24) 박향란(2018) 참조.

(44~46)는 모두 하나의 주어가 두 동사절을 공유하는데 앞 뒤 절이 행위의 선후관계로 구성된다. 이런 문맥에서 (45)와 같은 ‘원인’ 및 ‘이유’라는 의미가 파생된다. (46)은 ‘而’앞의 절이 나타내는 사건과 뒤의 절이 나타내는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시간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문법화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아래는 방식이나 모습을 형용하는 부사절로 쓰인 예문이다.

- (47) 王曰, 叟不遠千裏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梁惠王上)
왕이 ‘늙은이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왔으면 장차 내 나라에 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 (48) 舜之不告而娶, 則吾既得聞命矣。(孟子·萬章下)
舜이 고하지 않고 혼인한 것을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 (49) 始舍之, 圉圉焉; 少則洋洋焉; 悠然而逝。(孟子·萬章上)
처음엔 버리니 비실하다가 좀 지나서 유유히 가버렸다.

(47)은 ‘不遠千裏’가 뒤의 동사 ‘來’를 꾸며준다. (48)도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볼 수 있다. (49)는 ‘而’가 더 문법화 되어 단순히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보면 접속사에서 부사절 표지로의 변화는 결국 정도성의 문제다.

고대 중국어에서 원인, 도구, 방법 등의 의미관계를 ‘以’가 나타내기도 한다.

- (50) 宋以其善於晉候也, 叛楚即晉。(左傳·僖公二十六年)
宋나라는 晉候와 친분을 맺고는 楚나라를 배반하고 晉나라로 갔다.
- (51) 可使制挺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孟子·梁惠王上)
몽둥이를 만들어 秦나라와 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후려치게 만들 수 있다.
- (52) 否, 自生民以來, 未有孔子也。(孟子·公孫丑上)
그렇지 않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50)은 ‘以’ 뒤에 절이 출현하여 방식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 되었다. (51)은 ‘以’가 절 성분 뒤에 출현하는데 ‘而’와 위치가 동일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 (52)에서는 부사절에 쓰이던 ‘以’가 더 발전되어 동사와 함께 기점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휘화되는 단초를 볼 수 있다.

Ⅲ. 나오는 말

본고는 고대 중국어의 내포문 구조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대 중국어 내포문은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로 나눌 수 있다. 명사절은 절 성분이 주어, 목적어 혹은 서술어자리에 출현한다. 관형절은 명사를 꾸며 주는 절로 크게 관계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된다. 부사절은 동사와 연결되는 절로 지금까지 종속절과 구분 기준이 모호하였는데 이는 문장과의 결합도 및 문법화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본고는 부사절을 하나의 주어를 공유하면서 단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고대 중국어에서 명사절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보문소의 일종인 ‘之’가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자리에 출현하여 주로 판단이나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목적어 절은 서술어의 의미 특징에 따라 보문소의 출현 여부가 결정된다. 대개 지각이나 인지, 욕구, 감정, 판단과 같은 동사에서 ‘之’를 동반한다. 서술어 자리가 명사절로 충당되는 것은 고대 중국어의 중요한 특징이다. 관계절에는 ‘所’, ‘者’, ‘之’의 표지를 사용하는데 각각 목적어와 주어를 관계화 시킨다. 동격 관형절은 찾아볼 수 없는 데 인지 기능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고대 중국어의 부사절은 ‘而’나 ‘以’ 등의 표지를 사용한다.

고대 중국어 내포문 구조는 중고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현대 중국어에서 이른바 구조조사로 불리는 ‘的’, ‘得’, ‘地’의 생성과 발전은 내포문 구조의 계승과 발전과 관련이 있다.²⁵⁾ 동사 뒤에서 절을 이끄

는 ‘得’의 품사적 성격, 보어와 부사의 구분 등 현대 중국어 문법의 여러 난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불어 고전 문헌에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융합되어 있는 내포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고전 문헌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고대 중국어 내포문 구조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규, <중국어 명사구 어순에 대한 언어 유형론적인 고찰>, 《중국문학》 70집, 2011.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985.
- 박향란, <중국어 관계절의 유형 변천>, 《중국언어연구》 72집, 2017.
- 박향란, <고대 중국어 而의 문법화 연구>, 《언어과학연구》 84집, 2018.
- 백은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고대 중국어 관계절의 어순과 기능 특징>, 《중국언어연구》 68집, 2017.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 이익섭·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찰스 N 리. 샌드라 A. 톰슨,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89.
- 陈丹丹, 《汉语史上关系从句的类型学考察》,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2009.
- 大西克也, <秦汉以前古汉语语法中的“主之谓”结构及其历史演变>, 《第一届国际先秦语法研讨会论文集》, 岳麓书社.
- 高增霞, <从非句话角度看汉语的小句整合>, 《中国语文》 第1期, 2005.
- 何元建, <汉语是否存在合成性(或分析性)导向的类型学转变?>,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2017.

25) ‘的’와 ‘地’, ‘得’는 현대 중국어에서 명사와 동사를 수식하는 문법 표지로 변했는데 이들은 음성 및 문법 기능에도 비슷한 점이 있어 그 기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李明, 〈从“其”替换“之”看上古-中古汉语的兼语式〉, 《当代语言学》 第1期, 2017.
- 梁银峰, 《汉语史主从句和从属句的产生及其发展》, 上海人民出版社, 2016.
- 刘丹青, 《语法调查研究手册(第二版)》, 上海教育出版社, 2017.
- 刘丹青, 〈语法调查与研究中的从属小句问题〉, 《当代语言学》 第3期, 2005.
- 吕叔湘, 《汉语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1978.
- 吕叔湘, 《中国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1978; 박종한·이창호 역, 《중국어문법분석록》, 학고방, 2004.
- 吕叔湘, 〈“之”“其”构成的名词性词组〉, 《语言研究》 第2期, 1984.
- 沈家煊·完权, 〈也谈“之”字结构和“之”字的功能〉, 《语言研究》 第2期, 2009.
- 王洪君, 〈汉语表自指的名词化标记“之”的消失〉, 《语言学论丛》 第14辑, 1984.
- 王洪君·李榕, 〈论汉语语篇的基本单位和流水句的成因〉, 《语言学论丛》 第49辑, 2014.
- 王力, 《汉语史稿》, 中华书局, 1980.
- 魏培泉, 〈先秦主谓间的助词“之”的分布与演变〉, 《中研院历史语言研究所集刊》 第七十一本, 2000.
- 邢福义, 《汉语复句论》, 商务印书馆, 2002.
- 张敏, 〈从类型学看上古汉语定语标记“之”语法化的来源〉, 《语法化与语法研究》(一), 商务印书馆, 2003.
- 朱德熙, 〈自指与转指〉, 《方言》 第1期, 1983.
-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5; 허성도 역, 《현대 중국어 어법론》, 사람과 책, 1997.
- 朱冠明, 《先秦至中古汉语语法演变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5.
- Lindsay J. Whaley. *Introduction to Typology—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1997; 김기혁 역, 《언어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2008.
- T. Givon.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3; 김은일·박기성·최영희 역, 《기능 영문법 I》≫ 박이정, 2002.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김은일 역, 《문법화》, 한국문화사, 1999.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categorize and analyze the embedded constructions in old chinese. first, this paper divides the embedded constructions into three: nominal clauses, attributive clauses and adverbial clauses. nominal clauses can appear in subject, object and Predicate position. Subject Clauses usually express truth, certainty, or difficulty, and they namely evaluates something. and in object Clause, they often combine with perceive-cognize-utter verbs. Predicative Clauses also express judgment. in old chinese, nominal clauses habitually use complementizer ‘zhi(之)’.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english and korean. attributive clauses include relative clause and an appositive relative clause. relative clauses is marked with ‘suo(所)’, ‘zhe(者)’, ‘zhi(之)’, and they represent object and subject. an appositive relative clauses are not yet existed in old chinese. adverbial clauses are still highly ambiguous with subordinate constructions. the obscurity of the two clauses is related to degree of grammaticalzation. this paper defines adverbial clause as it shares one subject and appears in simple sentence. The markers of adverbial clauses use yi(以) and yi(以).

Key Words : 내포문(embedded constructions), 명사절(nominal clauses), 관형절(attributive clauses), 부사절(adverbial clauses)

